

사람과 자연, 농촌의 가치 공존

민 선 7기 무주군을 이끌고 갈 제45대 무주군수 황인홍 호가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기운찬 항해를 시작했다. ‘사람과 자연, 농촌의 가치가 공존하는 품격 있는 무주건설’을 위해 △세계적인 으뜸관광, △건강가득 소득농업, △함께하는 주민복지, △지역맞춤 특색개발, △움직이는 자치행정을 펼쳐나갈 예정으로, 주성장 동력인 ‘농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앞으로 추진해 갈 주민복지와 지역개발, 행정 등 각 분야별 사업들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를 만나 군정운영 계획과 방향을 들어봤다.

Q. 민선 7기 무주군정의 밑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요?

-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 4년, 진실하게 또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뛰겠습니다. 그래서 2만 4천여 우리 군민들과 함께 사람과 자연, 농촌의 가치가 공존하는 품격 있는 무주를 완성할 겁니다. 그 길은 ‘세계적인 으뜸관광과 건강가득 소득농업, 함께하는 주민복지, 지역맞춤 특색개발, 움직이는 자치행정’을 통해 만들 계획입니다. 군민여러분의 성원을 생각하고 군민여러분과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군민이 주인 되는 세상, 군민을 제대로 섬기는 행정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무주미래준비팀 활동 본격화
지역농업만의 경쟁력 강화
6개 읍면 특색 살린 관광개발
국기원 지역유치 역량 집중
보건의료원 의료서비스 향상**

Q. 지역 화폐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배경이 있나요?

- 무주는 생활권이 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깝습니다. 30~40분이면 닿기 때문에 주말이면 많은 분들이 쇼핑을 위해, 외식을 위해 나옵니다. 전주나 영등으로 나가는 분들도 많고요. 무주지역경제가 살려면 무주 사람들부터 무주에서 먹고, 사고,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주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생각한 건데요. 무주시장 등 근내 4개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지역 내 마트나 주유소, 식당, 이·미용실, 서점 등 상가 어디서나 통용 가능한 지역화폐 사용이 정착이 되면 지역경제도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인구 늘리기를 위한 지속 전담팀도 꾸리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인구 늘리기 시책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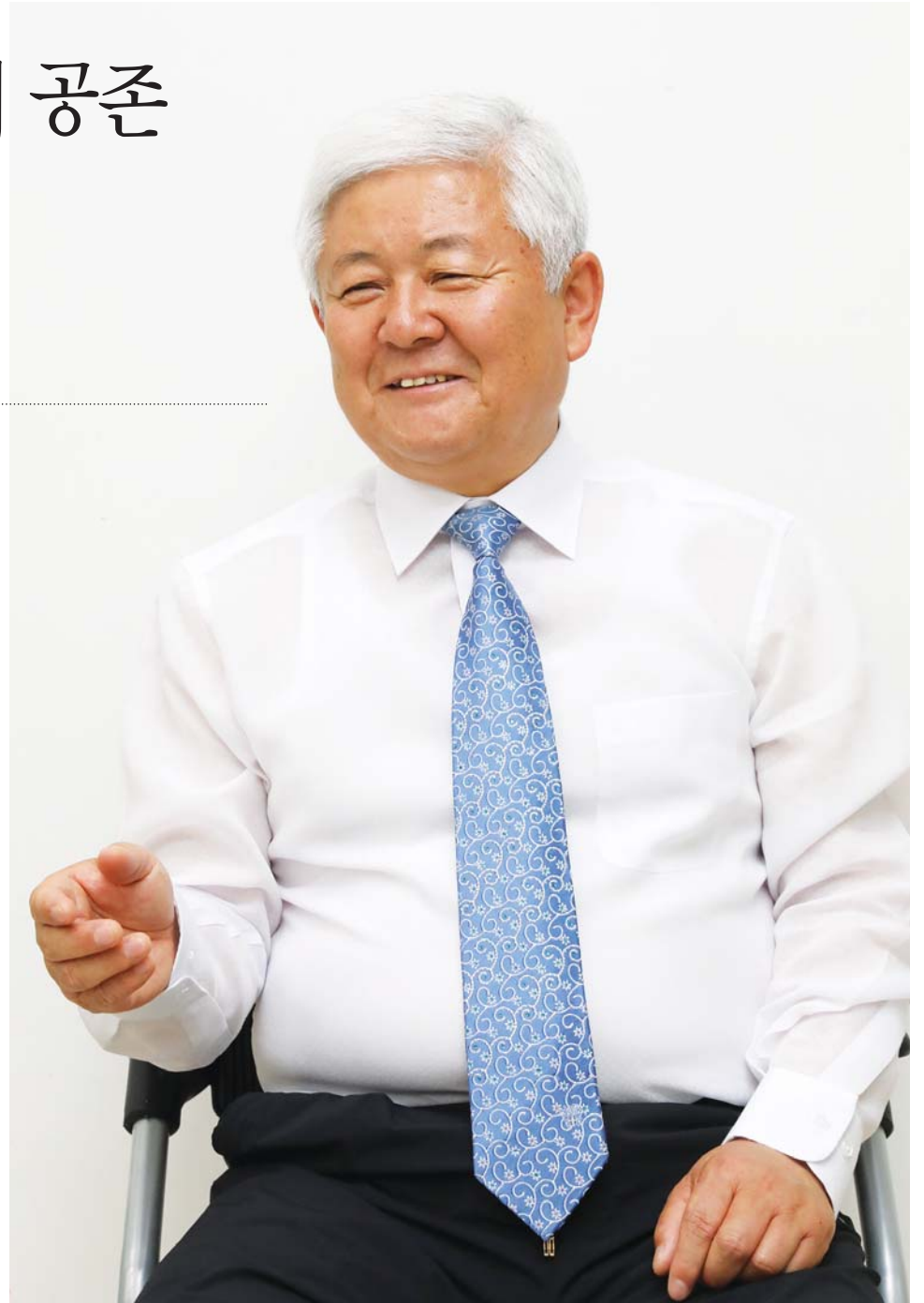
- 기존의 인구 늘리기 시책은 결혼장려금을 준단던지 자녀수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해준단던지 하는 경제적 지원이 주였다면 무주미래준비팀은 원인 해결에 집중한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소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건데 미래농촌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과 농업, 작목변화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선 대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무주미래준비팀 활동이 본격화되면 발전적인 무주의 미래가 그려질 거로 봅니다.

Q.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좀 말씀해주시지요?

- 무주 농업만의 생산, 유통, 판매 경쟁력을 키울 생각입니다.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춘 작목과 농법을 적용한 무주만의 경쟁력으로 승부해 ‘건강가득 소득농업’을 실현할 겁니다. 과수를 중심으로 버섯과 배리류 등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명품화시키고 기존의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도 펼칠 계획입니다. 홈쇼핑이나 대형 농산물 판매장을 통한 안정적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협과 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등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Q. 사실 ‘무주하면 관광’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지역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관광객이 고루 찾는 무주로 만들기 위한 방안 있을까요?

- 지난해 무주군을 다녀간 관광객이 510만 명 정돕니다. 대부분이 덕유산국립공원을 비롯한 무주덕유산리조트와 구천동 계곡, 반디랜드, 태권도원 등 설천면 지역에 몰리고 있는데요. 무주읍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도 명소들이



많기 때문에 곳곳마다의 매력을 찾아 어필한다면 관광수요는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6개 읍면의 특색을 살린 개발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각 지역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행복을 아우르는 웰니스 산업을 육성해 읍면 곳곳 어디나 찾을 수 있는 무주로 만들 것입니다.

Q. 후보시절부터 국기원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셨는데 그 이유는?

- 태권도원만 기능을 제대로 해준다면 지역경제와 스포츠, 관광 활성화는 물론, 인구유입까지 다 방면에서 우리 무주가, 또 군민들이 기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텐데요, 2015 세계유소년 태권도선수권대회와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가 된 거 말고는 2014년 개원 이래로 지금까지 피부로 와 닿을만한 뭉가 없었습니다. 저는 태권도원과 국기원이 합쳐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국기원은 태권도 관련 핵심 사업들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연수원 등 기능 일부가 아니라 완전한 이전이 성사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기원유치범군민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무주군민은 물론, 정부와 전라북도, 지역정착권, 태권도인들의 의지를 모으는데 집중해볼 생각입니다.

Q. 관련해서 태권도 유단자들의 귀촌 마을을 조성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호응이 있을까?

- 태권도 유단자들을 위한 귀촌마을을 조성하는 건 단순히 무주 인구를 늘리고 국기원 이전문제에만 국한해서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일평생 태권도의 대중화와 세계화, 명품화를 위해 고생하고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라고 본 거죠. 태권도

성지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태권도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태권도 후예들의 본보기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태권도 유단자들의 귀촌마을이 조성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Q. 보건의료원 기능강화, 서비스 질 확대 등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어떤 변화를 기대하면 좋을까요?

- 군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 의료원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무주는 대도시에 비해 의료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골이지만 믿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합니다. 주 이용객인 어르신들을 만족시키고 젊은 층의 유입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그만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생각이구요.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 · 운영하고 소아과 의사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전문의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Q. 군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

-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된 무주를 기대하며 황인홍에 대한 믿을 하나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여러분께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꼭 보답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군수, 깨끗한 군수, 정직하고 부지런한 군수, 여러분 앞에 모범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군수가 되어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군민이 주인되는 세상, 군민을 제대로 섬기는 행정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무주=전문성 기자

